



[뉴스]尹대통령 “北 도발수위 고조 국민안전에 만전” 02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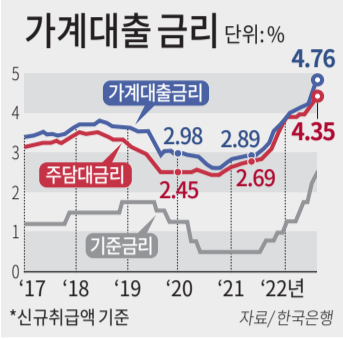
코스피	2329.17 (-7.70)	코스닥	694.13 (-3.24)
금리(국채 3년)	4.158 (+0.063)	환율(원·달러)	1423.80 (+6.40) (3일)

# 1001조 주담대, 이자 폭탄 떨어진다

## 고금리시대 위기의 한국號

(中) 가계빚

2분기 가계신용잔액 1869조 가계대출이 1757.9조 차지 주담대만 8.7조 늘어 1001조 고금리 시대 이자부담 공포



보여주고 있지만 부채를 여전히 우려스러운 요인으로 꼽은 것.

### ◆韓경제, 가계빚 여전히 ↑

3일 한은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9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6조4000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지난 1분기에 2013년 1분기(-9000억원) 이후 9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곧바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1조 6000억원 늘어난 1757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사상 처음으로 8000억원 감소한 뒤 가계신용과 마찬가지로 1분기 만에 다시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 대비 8조7000억원(0.9%) 증가한 100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8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 매매 수요 위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2분기 주택 매매, 전세 거래가 전분기보다 다소 늘어나면서 전세대출과 집담대출 중심으로 주담대가 늘었다”며 “기타 대출 감소폭은 축소되면서 전체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 ◆금리상승에···대출이자상승·경기침체 ‘경고등’

문제는 대출금리다. 국내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변동금리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제외)의 변동금리 비중은 2020년 초부터 상승해 올 8월에는 45.7%로 예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변동금리는 금리변동위험이 차주에 전가되어 금리인상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최근 한은이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선 만큼 차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금리는 10년 2개월 만에 5%를 넘어섰다.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4.76%) 대비 0.39%포인트(p) 오른 연 5.15%로 집계됐다. 가계대출금리는 한은이 본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한 지난해 6월부터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면에 계속)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메트로미디어 ‘2022 반도체 포럼’ 초격차 넘어 상생의 생태계로

국내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업체들까지 추격을 본격화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전략도 좀처럼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기반을 이루는 소재와 부품, 장비 육성 정책도 미국과 일본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중심 산업입니다.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 분야로,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전폭적인 투자와 노력 끝에 전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본격화하고 추격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원 뜻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정작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현실적인 움직임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반도체 포럼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과 과제를 제시합니다.

- 주제 : 글로벌 혁신의 주역 K-반도체 -초격차를 넘어 상생의 생태계로
- 일시 : 2022년 11월9일(수) 14:00~17:00
- 장소 : 서울 여의도 KRX거래소 컨퍼런스홀
- 축사 : 양향자 국회의원, 홍순욱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 강연 :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왕성호 네메시스 대표이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 대외협력위원장),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후원 : 한국거래소(KRX),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의 : 메트로신문 반도체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 '매파 연준'에 상승 코스피가 전 거래일(2336.87)보다 7.70포인트(0.33%) 하락한 2329.17에 마감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97.37)보다 3.24포인트(0.46%) 내린 694.13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17.4원)보다 6.4원 오른 1423.8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스

## m-커버스토리

# ‘제2의 호황’에도 배 만들 사람이 없다

### K-조선 ‘인력난’

업황 호황에 수주 안정적 초격차 기술 유지 골든타임 5년간 4.3만여명 인력필요

국가 경제의 기둥인 조선업계가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친

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제 2의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심각한 인력난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주 물량을 대거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일감 확보와 수익성 확대가 가능해졌지만 인력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불황이던 2017년 이뤄진 구조조정 당시 산업 현장 을 떠난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단기간 해결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인력난 심각···5년간 4만 3000명 추가 인력 필요

국내 조선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수주 절벽에 직면하면서 인력 이탈이 심화됐다. 당시 노동자들은 건설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군으로 이동했고 신규 유입은 턱없이 부

족했다. 자연스럽게 만성적인 인력난에 직면했다.

이같은현상은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이하 조선협회)가 공개한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업 종사자는 2015년 20만3000여명이던 것이 올해 들어선 9만2000여명으로 50% 이상 감소했다. 현장 기능직만 줄어든 게 아니었다.

차세대 선박기술 개발을 책임져야 할 설계·기술 인력 이탈

은 더욱 심각했다.

문제는 국내 조선업계가 글로벌 경쟁 업체들과 초(超)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해 추가되어야 할 인력은 향후 5년간 4만 3000여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선협회는 국내 건조 규모를 감안해 2027년까지 조선해양 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13만 5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北 잇단 미사일 도발에 한미 연합공중 훈련 연장... 강대강 대응 /사진 뉴스  
▲北, 신형 ICBM ‘화성-17형’ 발사... 정상비행 실패한 듯

▲野 ‘더미래’ “尹, 사과·책임자 경질해야”... 국조도 요구  
▲ 이재명, 北 도발에 “벼랑 끝 전술 펼치다 벼랑 떨어진다”



▲ 정진석, 野 ‘국조 요구’에 “검수완박 개정부터... 그게 먼저” /사진 뉴스  
▲ 정의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환영, 與 협조해야”